

‘숲세권·역세권’ 누리는 장위 13구역... 5900세대 들어선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북서울꿈의숲·동북선 입지 살려 남북도로 신설해 교통 순환 도모

서울시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재개발 대상지인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동 224-12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위동 219-90 일대인 13-1구역에는 3400세대, 장위동 224-12 일대인 13-2구역에는 2500세대 등 모두 5900세대 안팎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지난해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 기준 용적률은 30% 완화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보다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용적률은 2008년 4월 수립된 장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상 230%, 4128세대 규모에서



장위 13-1·2구역 조감도.

(서울시)

300%, 5900세대 안팎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 등의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대상지가 가진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숲세권과 역세권’을 다 누리는 장위 생활권의 중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먼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녹지축을 연결하고,

장위 13-1·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지구의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 변에는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연결녹지를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공원·녹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지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

로와 13-1·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에서 신설역세권, 장곡초등학교, 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걷기 편한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월계로 개선사업(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 연결녹지 및 보행교 설치)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장위 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해 순환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장위 13-1·2구역이 개별 사업 추진 시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두 개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또 대상지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가로 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커뮤니티 필드(주민공동시설 배치)’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성북구에서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중 ‘장위 13-1·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보행·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metro

인하대, 캠퍼스 내 자율주행 로봇 도입

(주)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주)로보티즈AI와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인하대는 지난 21일 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배달 서비스 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퍼스 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교육·연구·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실증형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로봇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로보티즈AI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음료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캠퍼스 안전을 지원한다. 인턴십과 취업 연계



(왼쪽부터) 김병수 로보티즈AI 대표이사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스마트캠퍼스 구축·배달 서비스 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하대와 로보티즈AI는 앞으로 로봇 운영 환경 개선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 기반 물류 연구와 공동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미디어 교육 받은 청소년, 가짜뉴스에 더 취약

청소년 72% ‘숏폼’으로 뉴스 소비 알고리즘 추천으로 ‘수동적’ 형태 교육 한계·과신효과로 역효과 발생

청소년의 뉴스 1순위 소비 채널이 숏폼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숏폼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역설이 확인된 것이다.

이장석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구팀이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전국 만 14~19세 중·고등학생 5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숏폼 뉴스 신뢰도 형성 매커니즘’을 분석한 결과다.

22일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1%가 1순위 뉴스 소비 채널

로 숏폼 플랫폼을 꼽았다. 긴 영상·스트리밍 플랫폼은 20.1%, 포털은 7.7%에 그쳤고, TV나 신문 등 전통 매체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없었다. 뉴스 소비 방식 역시 71.8%가 소셜미디어 이용 중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우연히 접하는 ‘수동적 소비’ 형태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의 뉴스 신뢰는 ‘사실 여부’보다 ‘플랫폼과 또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9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또래 동조성’(표준화 계수 $\beta = .253$)이었다. ‘좋아요’나 댓글이 많은 콘텐츠일수록 비판적 검증 없이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가짜뉴스 신뢰도 간 관계는 기존 통념과 정반대였다. 실제 숏폼 가짜뉴스 영상을 제시한 뒤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의 평균 점수는 3.61점으로, 적게 받은 집단(2.9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과신 효과’를 지목했다. 연평균 교육 시간이 6.64시간에 그치고 내용도 이론 중심에 치우쳐 실제 출처 확인이나 교차 검증과 같은 실습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경계심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장석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방어막을 스스로 해제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단편적인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판별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7 | 해질 / 19:14

4월 23일 (木) 음력 : 3월 7일

수도권 날씨 10 ~ 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혁신 기후테크 44곳 집중 지원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자금 제공

경기도가 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 44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금 및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의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34곳과 3년 이상 관련 산업을 영위한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인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이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공모에는 총 420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기술 혁신성, 탄소 저감 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기업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항공유(SAF) 원료 생산 기업

‘그린다’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34개 스타트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이 기업당 평균 4000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사업 모델 고도화, 전문 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제공해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지정서가 수여되며, 기업당 연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지원받는다. /경기=김대희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 ▲미국 트럼프,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 아닌 ‘3~5일’ 의향 /사진 뉴시스
- ▲‘얼굴 없는 최고지도자’ 모스타바...이란, ‘침묵의 정치’로 재편되나

- ▲영·프 주도로 22~23일 ‘호르무즈 재개방’ 군사 회의
- ▲중국 시진핑, 아프리카 모잠비크 정상 만나... “에너지·광물 협력 탐색”

- ▲북 사회안전성, 러시아 내무부 회담... “경찰 도입 심도 있게 논의”
- ▲대만인 57% “중국과 대만 분쟁시 美 병력 파견 않을 것”